

최근 몽-중, 몽-러 협력관계 발전방향과 과제

1. 최근 몽골 중국 협력관계 발전
2. 최근 몽골 러시아 협력관계 발전
3. 몽골 중국 관계에서의 향후 주요 과제
4. 몽골 러시아 관계에서의 향후 주요 과제

1. 최근 몽골 중국 협력관계 발전

양국관계 발전의 배경:

몽골의 대중국, 대러시아 경제협력정책의 기본 방향이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를 통해 본격화되었다. '초원의 길'은 몽골을 거쳐 중국과 러시아를 철도, 도로, 전력 송전망, 가스파이프라인, 원유 파이프라인 등으로 연결하는 초국경 인프라개발 구상이었다. 몽골 개발정책인 '장기 비전 2050', '신부흥 정책'¹ 역시 대외경제협력 사업으로는 '초원의 길' 구상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중국의 대몽골 정책은 '주변외교'와 '일대일로 전략' 범위내에서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다. 중국의 주변외교는 미중간의 전략경쟁 본격화와 경제 탕동조화 그리고 러시아의 국제관계전략 위기 등으로 인해 중국은 중국 중심의 아시아 지역질서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한편 일대일로 전략은 서부지역 적극 진출과 동시에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 건설을 위한 투자와 경제지원을 통해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5대 과제로 파트너국가와의 정책 소통, 인프라 연결, 무역 원활화, 자금유통, 민심 상통에 중점을 둔다.

양국관계의 발전경과:

- [정책 소통] 정책소통은 고위급 인사교류, 양자협력의 전담부처간 정기적 소통, 지역 또는 국제무대에서 협력강화 등을 의미한다.
- 최근 몽중간 고위급 인사교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제로 코비드' 정책과 물류대란 영향으로 수출길 재개와 고물가 부담 해소를 위해 몽골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중 외교에 나섰다.

¹ 신부흥정책은 몽골경제개발의 주요 제약요소인 1) 검문소인프라 2) 에너지발전원, 3) 산업인프라 4) 도시와 지방의 발전격차 5) 녹색성장 기반 6) 거버넌스 효율성 등 문제개선을 위한 단기대책이다. 신부흥정책 일환으로 6개 부문 94개 개발사업을 추진 중 또는 예정이다.

<표-1> 몽골 주요 인사 대중국 방문

2014년	몽골 대통령 4차 아시안 신뢰구축 정상회의 참석, 22회 APEC 정상회담, 상해협력기구 정상회담과 몽중일 3국 정상회담
2015년	몽골 대통령 인민군 70주년 전승 기념행사, 상해협력기구 정상회담과 몽중일 3국 정상회담, 국회의장 아시아 정당들 실크로드 특별 회의 참석차 중국 방문
2016년	몽골 대통령 상해협력기구 정상회담과 몽중일 3국 정상회담
2017년	몽골 총리 공식방문, 국회의장 중국공산당과 세계정당 대화회의 참석
2018년	몽골 대통령 상해협력기구 정상회담과 몽중일 3국 정상회담
2019년	몽골 대통령 일대일로 포럼 참석, 상해협력기구 정상회담과 몽중일 3국 정상회담
2020년	몽골 대통령 코로나 19 대응 지원을 위한 중국 실무방문
2022년	2월 몽골 총리 베이징 2022 동계올림픽 참석 등으로 중국 방문 11월 몽골 대통령 중국 국민방문

<표-2> 중국 주요 인사 대몽골 방문

2014년	시진핑 중국 주석 몽골 방문
2016년	리커창 중국 총리 ASEM 참석차 몽골 방문
2018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몽골 방문
2020년	10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몽골 방문
2021년	10월 리커창 총리와 어용에르덴 총리 화상 회담
2022년	8월 7-8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몽골 방문 9월 11-12일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몽골방문

➤ 몽골 중국간 경제협력관련 정책문건

- '2022년 몽골과 중국간 전면적이고 전략적 동반자관계 신세대 증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양측 국가개발정책 공유를 통해 국제사회에 모범이 되는 양자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양국이 입법부, 행정부, 정당, 국방, 지방정부간 대화증진과 정책지원을 확대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통상, 투자, 금융, 광물자원, 에너지, 인프라, 전자경제, 녹색 성장 분야 협력은 물론 특히 양국간 검문소 물동량을 실질적으로 또한 효율적으로 늘리기로 하였다. 양국간 인프라연계, 에너지협력은 우선순위 협력사업이며, 청정에너지와 초국경 철도개발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 '몽골 중국 통상경제 협력개발 중기 프로그램' 2008년 최초로 5년 기간으로 체결하였고, 2014년, 2022년 11월에 갱신하였다. 2014년 당시 프로그램을 통해 인프라개발사업 11개, 자원에너지도시개발 등 13개 사업을 포함하여 총 90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최근

KIEP 몽골연구회

단국대학교 부설 몽골연구소 전임연구원

개정된 3차 프로그램에는 통상, 투자, 광물자원, 에너지, 정보통신, 인프라개발, 디지털경제와 녹색성장 등 부문에 더욱 집중하기로 하였다.

➤ 몽골 중국간 협력 메커니즘

- 몽중 통상, 경제, 과학, 기술협력 정부간 공동위원회: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 양국간 경제협력관련 주요 사업 기획과 이행을 점검 논의한다. 이외에 몽중 자원, 에너지, 인프라 공동위원회, 몽골, 중국 외교부간 전략대화 등이 있다.

- **[인프라 연결]** 양국을 연결하는 철도, 도로, 항공, 에너지, 검문소 등 인프라의 연결을 강화하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몽골은 2025년까지 신회복정책을 통해 중국과 연결되는 검문소 물동량 3배, 검문소 철도를 포함해 국가철도망 2배, 항공업 수송량 2배로 늘릴 예정이다.

- **검문소 개발:** 2020년 “검문소, 검문소 규정에 대한 몽골정부와 중국정부간 협정”에 따라 몽중간 4개 검문소 새로 설립하기로 합의하였고, 총 검문소 13개에서 17개로 늘렸다.

- 양국간 교통물류인프라 부족은 경제협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꼽힌다. 양국간 교통물류인프라가 부족해서 2020-2022년 사이 몽골의 컨테이너 화물 4500-5000대가 중국 텐진 등 지역에서 3달 이상 묶이는 대란이 발생하였다.
- '신부흥 정책' 일환으로 2029년까지 검문소 물동량을 9500만 톤까지 늘릴 계획이고, 2024년까지 7000만톤에 도달해 현 수준보다 3배 늘릴 것이다. 2022년 말 몽골정부가 검문소 업무만 담당하는 장관 자리를 따로 만들고, 검문소 운영을 총괄하는 행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현재 3개 주요 검문소(자밍우드, 가송소하이트, 비치트)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 중이다. 나머지 11개 검문소개발 타당성조사와 설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자밍우드 검문소의 경우 중국정부의 2.33억 위안 무상원조 지원과 몽골정부의 300억 투그릭 재정투입을 통해 검문소 리모델링 사업을 2019년부터 착공하였다. 사업결과로 검문소 물동량이 하루 차량 수용량 2247대 (기존 대비 7배), 승객 5678명 (기존 대비 4배), 화물 물동량 300만 톤 (기존 대비 4개)으로 증가한다.

- <그림-1> 몽골의 검문소 위치와 이름



<표-3> 몽골과 중국을 연결하는 철도와 검문소 공사현황

	검문소 이름	검문소개발사업	철도개발사업	기대효과	개통일
1	자밍우드-에렌 (Zamiin uud- Ereen)	고속도로(987km) 신설, 환적소와 도로개보수	몽골횡단철도 현대화 사업 예정	2500만 톤 광물수출	-
2	비칙트-주웅하타브치 (Bichigt-Zuunkhataavch)	철도와 환적소 신설, 도로개보수	Choibalsan -Khuut-Bichigt 신규철도 (426km)	500만톤 광물수출	2023년 공사 착수예정, 타당성조사와 설계도 작성 완료
3	시베후렌-세헤 (Shiveekhuren-Sekhe)	철도와 환적소 신설, AGV 자율주행차량 도입(2022년 9월), 송전망 연결	Arts suuri-Nariinsukhait Shiveekhuren(1255) 신규철도	4000만 톤 광물수출	2023년 공사 착수예정, 타당성조사와 설계도작성 완료
4	가송소하이트 간츠모드 (Gashuunsukhait-Gantsmod)	벌크컨테이너 인프라 확충	Tavantolgoi-Gashuunsukhait 철도 (233km) 준공	5000만 톤 광물수출	2022.9.9 철도 개통, 중국과 연결좌표 합의
5	항기-만달(Hangi-Mandal)	도로 등 인프라	주웅바양-항기 신규철도(227km) 준공	2000만 톤 광물수출	2022.11.25신규철도 준공, 연결좌표 협의 중

- **철도 개발:** 2022년도에 몽골 주요 광산지역에서 중국과 접경하는 국경까지 연결하는 2개 신규철도가 건설되었다. 타반톨고이 - 가송소하이트 철도, 주웅바양-항기 철도 몽골 국내업체가 8개월만에 2km 단선철도를 공사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중국과 연

결해서 교통 교류하는 것이 아직 남아있다.

- 광물수출용 철도로 일컫는 이들 철도를 개발함에 따라 몽골의 대중국 수출규모가 3배 늘어난다. 또한 그 동안 트럭으로 운반하였던 것 비교할 때 광물 철도운송은 40US 달러이었던 운송비를 8불루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앞으로 중국과 연결하는 동부중단철도 (비치트 검문소), 서부중단철도(시베후렝검문소) 개발공사가 2023년 7월부터 착공예정이다.

- **도로 개발:** 중국과 연결되는 13개 검문소 중 8개 검문소를 국도와 연결하는 도로개발사업으로 총 2966km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들도로개발사업은 비교적 인프라 개발과 국경무역이 낙후된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에 계획되어 있다.

<표-5> 도로부문 중국정부 개발협력사업

도로 노선	국경통과지점	주요 기능	진행과정
Gachuurt-Nalaikh/Choir 도로	20.9km,	중국차관	
Khushigt 신공항 도로	32km	중국차관	
Tosontsengel-Uliastai 지방 도로	114km	중국차관	
Bayankhongor Baidrag 지방도로와 교량	129.4km	중국차관	

- **[무역 원활화]** 양국간 교역거래 활성화를 유도하여 상승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2014년에 2020년까지 양국간 교역액을 1000만 달러에 도달시키기로 하였는데 달성하였다. 앞으로 2030년까지 2000만 달러로 만들기 위해 자유무역지대 등 무역 플랫폼 건설 및 구축, 무역원활화 협정 체결, 세관업무 간소화와 정보교환증진 사업 등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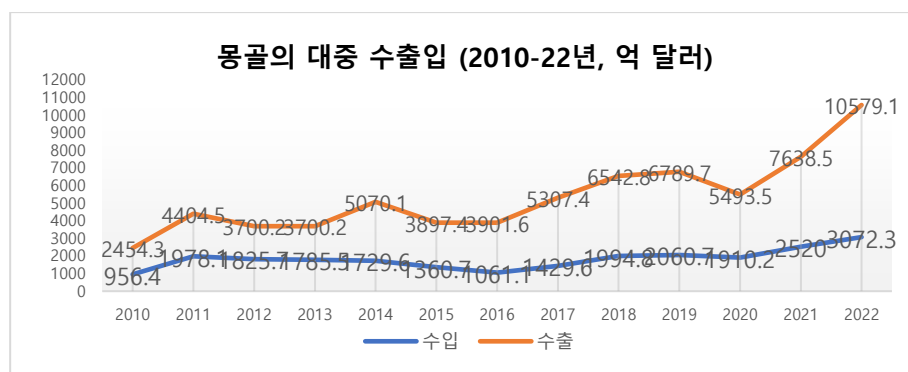
- 자유무역지대: ZamiinUud 자유무역지대는 몽골정부가 2004년부터 단독으로 추진해온 본 사업 2018년부터 양자간 공동사업으로 변경되었고, 2019년에 중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하였다. 현재 본 지대에 몽골의 88개 기업이 113 헥타 땅을 보유하고, 총 120억 투그릭 투자를 해서 사업운영 중이다.
- 석탄거래소, 광물거래소 등 플랫폼 구축: 보다 투명하고, 질서있는 자원거래지원, 부정부패와 횡령방지 차원에서 몽골정부 또한 중국지방정부에서 도입하였다.

KIEP 몽골연구회

단국대학교 부설 몽골연구소 전임연구원

- 관세 인하: 한국 중국 등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APTA 협정에 몽골이 가입함에 따라 일부 광물 수출입에 관세가 인하되었다. 예를 들어 석탄류 (2701) 형석류 (2529) 기존 20-50% 관세가 13%로 축소되었다.
- 세관업무 간소화와 정보교환증진사업: 2022년 11월 국제무역 "단일창구(single window)" 서비스 제공을 위한 양국간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2017년 몽골이 WTO '무역원화화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전자통관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통관업무 중 55%, 수출신고업무 중 99%를 전자상으로 처리하게 되었다. 앞으로 중국관세청과 정보교환이 가능해졌다.

<그래프-1> 몽골의 대중 수출입



출처: 몽골통계청, 대외부문통계 2022, www.1212.mn

- 2022년 기준 몽골의 대중 수입액은 30.4억 달러로 전체 수입 중 35%, 대중 수출액은 105.6억 달러로 전체수출의 84.3%를 차지하고 있다. 몽골이 유일하게 대중 교역에서 흑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 광물, 양털 등 일부 상품에만 한정되었던 양국간 교역관계가 최근 10년 동안 육류, 피혁, 곡식과 작물, 우유와 유제품 최근에는 건조 등 사료 제품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 [자금유통] 금융교류

- **중국의 대몽골 FDI:** 2021년 말 누적액 기준 중국의 대몽골 투자액은 45억 달러 (총 210억 달러), 몽골의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액의 25%에 달한다. 2013-2016년을 제외하면, 몽골의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중 중국 비중은 36-41%를 유지하여 꾸준히 1위를 차지해왔다.²
- 2021년 기준 7543개의 중국기업이 몽골에 투자하였다. 이 중 72.1% 즉 5438개 기업이 외식업과 도소매업 투자하였다. 이후 건설업과 엔지니어링업 271개, 지질 탐사업 167개, 운

² 몽골은행, '외국인직접투자동향 2015,' 출처: www.mongolbank.mn

송 물류업 136개, 관광업 135개 순이다.

- **몽골의 대중국 부채:** 전체 대중국 부채 규모가 2021년 말 기준 38억 달러이다. 몽골 전체 대외부채 규모가 338억 달러이며 이 중 11.2%가 대중국 부채이다. 전체 대중 부채 중 75%는 중앙은행, 13.2% 정부, 18% 금융기관, 나머지 2% 기업 부채이다.
- 몽골은행의 대중국 부채 규모가 28억 달러이다. 2011년에 중국 인민은행과 100억 위안 통화스와프 처음 체결하였다. 이후 2014년 50억 위안 추가해서 2017년과 2020년도에 각각 3년 연장하였다. 본 협정이 2023년 7월에 만기예정이다. 지난해 2월에 몽골총리 방문을 통해 통화스와프 재연장을 중국측에 요청한 상태이다.
- **[민심상통]** 몽골과 중국은 청시대와 냉전시대 중소분쟁 등의 영향으로 1990년까지 민간교류는 자유롭지 않았고, 한때 서로를 적대하는 사회적 캠페인도 실시하였다. 따라서 민족간 이해, 소통, 신뢰 부족은 분명히 있어왔다.
- 양국 정상 회담을 통해 서명된 총 16개 문서 중 8가지 문서가 사회문화교육인문교류에 대한 문건이었다
- “대통령 명의 어린이 청소년 스포츠교육종합시설”, “민족예술대극장” 설립사업 등을 중국정부 무상원조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몽골국영방송국과 중국국영방송국간 협력협정 갱신 등을 통해 언론인교류와 중국콘텐츠 송출사업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몽골학생을 위한 중국정부장학사업 코로나 시기에도 이어져왔다. 2021년 67명, 2022년 .. 명 선정하였다.

2. 몽골 중국 관계에서의 향후 주요 과제

- 몽골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철도와 검문소 확장사업 결과로 2023년 말 석탄 수출을 5000만 톤까지, 국영기업 한 곳만 해도 2300톤까지 늘릴 계획이다. 광물 등 일부 상품으로만 구성된 단순수출구조, 거래가격과 공급망의 불안정성, 불안정한 수출입 성장추이 등 양국간 교역의 구조적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 몽골 중국간 이루어지는 상품거래와 투자관계는 국경기업과 지방정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광물거래에서의 부정부패 문제와 자원횡령 문제가 앞으로 투명성제고와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제도를 필요로 한다고 본다.
- 중국정부는 2014년 이후부터 몽중러 3국 정상회담 등 공식 자리를 통해 몽골의 SCO 가입문제를 일관되게 요청해왔다. 후렐수흐 대통령은 지난 9월에 열린 상해협력기구 정상미

KIEP 몽골연구회

단국대학교 부설 몽골연구소 전임연구원

팅을 통해 몽골이 앞으로도 현 지위를 유지할 것을 밝혔다. 상해협력기구 가입은 몽골 대외정책기조 상 '제3이웃 정책'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한편 중국의 주변국 외교 중시는 몽골에 그 만큼의 선택의 압력이 가중되고, 향후 몽골 제3이웃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더욱 고도의 외교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당분간은 중국은 몽골과의 협력에 최선을 다 하겠지만 이중적인 외교가 지속될 경우 강력한 보복으로 나설 확률이 높다.

3. 최근 몽골 중국 협력관계 발전

[정치교류]

- 2014년 푸틴 대통령 방몽 때 양국간 미래 지향적인 경제협력 강화를 약속하고,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15가지 문서를 체결하였다. 즉 철도, 교역, 에너지 등 핵심 협력분야 협력개발과 '몽골횡단철도의 현대화와 전선화 사업', 세관협력과 검문소개발사업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양국간 교역규모를 100억 달러에 달성하는 것을 합의하였다.
- 2016년 4월 '몽골, 러시아 전략적 동반자관계협력 개발 중기 계획 2020년까지 양자 경제협력 사업을 제시하였다. 양국은 교통인프라, 통과운송, 교역, 투자, 인문, 국제사회, 몽중러 삼자협력 등을 주요 협력부문으로 정하였다.
- 2017년 바트톨가 몽골대통령 러시아 방문을 통해 몽골이 러시아를 통과하는 철도운송에 대한 운임협정, 몽골의 석탄 수출을 위해 블라디보스톡 항만 이용권,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연계한 가스파이프라인 개발사업 착수를 합의하였다.
- 2019년 9월 푸틴 대통령 "우호관계, 포괄적이고 전략적 동반자관계 발전을 위한 영구적 조약" 양자간 경제협력 대상사업으로 몽골내 러시아 재산처리 문제, 환경보호와 초국경형태 수자원 사용문제, 과학기술협력과 인재양성, 몽-중-러 경제회랑 프로그램 이행, 통과운송, 가스 파이프라인 개발사업, 상하이협력기구내 지역협력 등 여러 사업을 추가하였다.
- 2021년 12월 중순 후렐수흐 대통령 대러 실무방문을 통해 에너지, 석유와 연료, 천연가스, 교통운송, 정보통신, 인프라, 농업, 환경, 통상 등 분야 경제협력 확대를 다시 확인하였다. 또한 철도중앙회랑 현대화와 경제성 향상, 기술 또는 인프라개선 추진, 에너지, 농업, 건설업, 석유제품 유통 협력심화 방안 논의하였다.
- 요약하자면, 몽골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의 전통적인 의제는 국경무역을 포함한 교역, 투자, 철도운송과 철도운임 조정, 연료 등 에너지수급 위주로 이루어졌다. 이에 더해 2000년 들어서 우라늄 등 광업, 검문소 등 물류 인프라, 농업 등이 추가되었고, 사업추진을 위해 양측은 공동합작기업도 설립하기도 했다. 2014년 이후로 몽-중-러 삼국간 지역협력, 가스 파이프라인 개발, 송전망 개발 등 새로운 사업들로 보완되었다.

<표-6> 최근 몽골 러시아 간 정치교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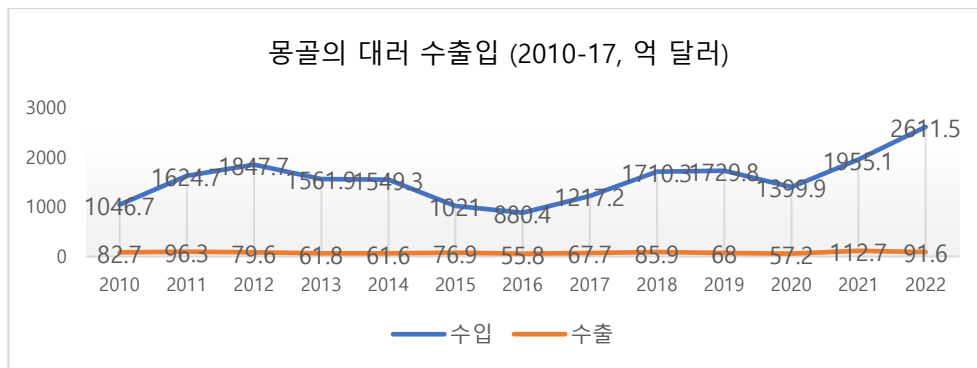
2014년	5월 알탕호야그 몽골 총리 상크트 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참석차 방문 6월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 의장 몽골 방문 9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몽골 방문
2015년	2월 나르시킨 러시아 하원의장 몽골 방문 6월 사이항블렉 몽골 총리 러시아 방문 9월 푸렙수렝 몽골 외교부 장관 러시아 공식 방문 9월 옹흐볼드 몽골 국회의장 러시아 방문
2016년	4월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부 장관 몽골방문 7월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 몽골방문
2017년	2월 몽크 오르길 외교부 장관 러시아 방문
2019년	9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몽골 방문 12월 후렐수흐 몽골 총리 러시아 방문
2021년	6월 바트체체그 몽골 외교부 장관 러시아 방문 10월 21-22일 사이 내각관방부 차관 오베르쵸크 (A. V. Overchuk), 러시아 연방평의회 부의장 코사체프 (K. I. Kosachev), 러시아 정부내각 부총리 아브람첸코 (B. B. Abramchenko), 12월 러시아 참모총장 겸 국방부 차관 게라시모브 (V. V. Gerasimov) 12월 16-17일 몽골 대통령 러시아 방문
2022년	7월 5일 라브로프 장관 몽골 방문
2022년	9월 7일 몽골 총리 동방경제포럼 참석

[교역 관계]

➤ 교역 동향

- 코로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몽골과 러시아간 교역은 2021년 20.7억 달러, 2022년 26.9억 달러로 연 평균 35%씩 증가하였다. 양국이 희망해온 100억 달러 규모의 교역에 이르기에는 아직 멀었다. 몽골의 대러 수입액은 2022년 말 기준 26.1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러시아는 몽골의 전체 수입 중 점유율이 35.9%에 달했다. 같은 기간 몽골의 대러 수출 역시 증가하였고, 2021년 1.1억 달러, 2022년 8520만 달러에 달했다. 몽골의 대러 수출증가는 금, 은 등 귀금속과 그 정광 수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사료된다. 러시아는 중국, 스위스, 싱가포르, 한국 다음으로 몽골 대외수출 5위 주요 파트너국이 되었다.

<그래프-2> 몽골의 대러 수출입 추이



- 수출입 품목 구조를 보면 2022년 말 기준 몽골의 대러 주요 수입품목은 연료(60%), 철강 (6.2%) 밀 등 곡류 (3.9%), 철도차량 (3.5%) 보일로 등기계류 (2.28%), 비료 (1.8%) 등 순이다. 몽골은 휘발유, 디젤유 연료 소비의 98%, 전기에너지의 4.7% 대러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연료는 수입규모가 2017년 7.9억 달러, 2018년 11.1억 달러, 2019년 11.6억 달러, 2020년 8.1억 천달러 등 꾸준히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 지난 10년 동안 몽골의 대러 수출품목 중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 것은 형석과 몰립덴 등이 광물이 차지한다. 이어 철도차량 등 기계류와 밀, 코코아 그리고 농산물 그리고 편물제 의류 위주로 구성되었다. 지난해 몽골의 대러 수출은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이 역시 금광 품목만 늘어난 것이다.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은 120여 개 중에 달하는 반면 러시아가 몽골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은 12 가지 품목밖에 안 된다.
- 몽골과 러시아는 비관세 장벽제거 차원에서 세관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3월 25일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간 '서류없는 무역원활화 협정'이 타결되었고, 러시아와 몽골은 둘다 가입하였다. 수출입신고서, 원산지증명서 등 통관 서류의 전자문서화 등으로 역내 통관시간 및 관련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본 협정 범위 내에서 양국은 2021년 12월 16일 '일부 상품에 대한 세관검사 전자서류에 상호 인정에 대한 의전서'에 서명하였다. 본 의전서에 따라 몽골산 17개 주요 상품과 러시아산 51개 상품에 대해 통관과정에서 세관 검사결과를 상호 인정한다는 것이다. 서류없는 무역원활화 사업 이외에도 통관단일창구 사업, 품목분류체계사업 등 통관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양국간 교역원활화를 위해 알탕볼라그 국경도시에서 설립하는 자유무역지대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몽골 정부가 2003-12년 사이 총 265억 투그릭 예산을 본 지대 인프라설비에 투입하였다. 2017-2022년 사이 아시아개발은행 지원하에 2907만 달러 투자를 투입해

KIEP 몽골연구회

단국대학교 부설 몽골연구소 전임연구원

'국경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인 투자도 80억 투그릭 들어갔다. 20여 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100여 개 제품을 15개 국가에서 수출입하고 있다.

- 양국간 교역확대를 위한 대안으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몽골간의 자유무역협정서(FTA) 체결을 준비해왔다. 2020년 9월 11일에 본 위원회가 몽골과의 FTA 체결 가능성 조사를 위한 공동업무팀 구축하였다. 2021년 말로 예정되었던 공동팀 사전조사가 현재 중단된 상태이다.
- 러시아는 몽골에 있어 15위 투자국가이다. 2020년 누적투자액 기준 러시아의 대몽골 투자액은 4.1억 달러로 몽골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중 1% 차지하고 있다.

[러-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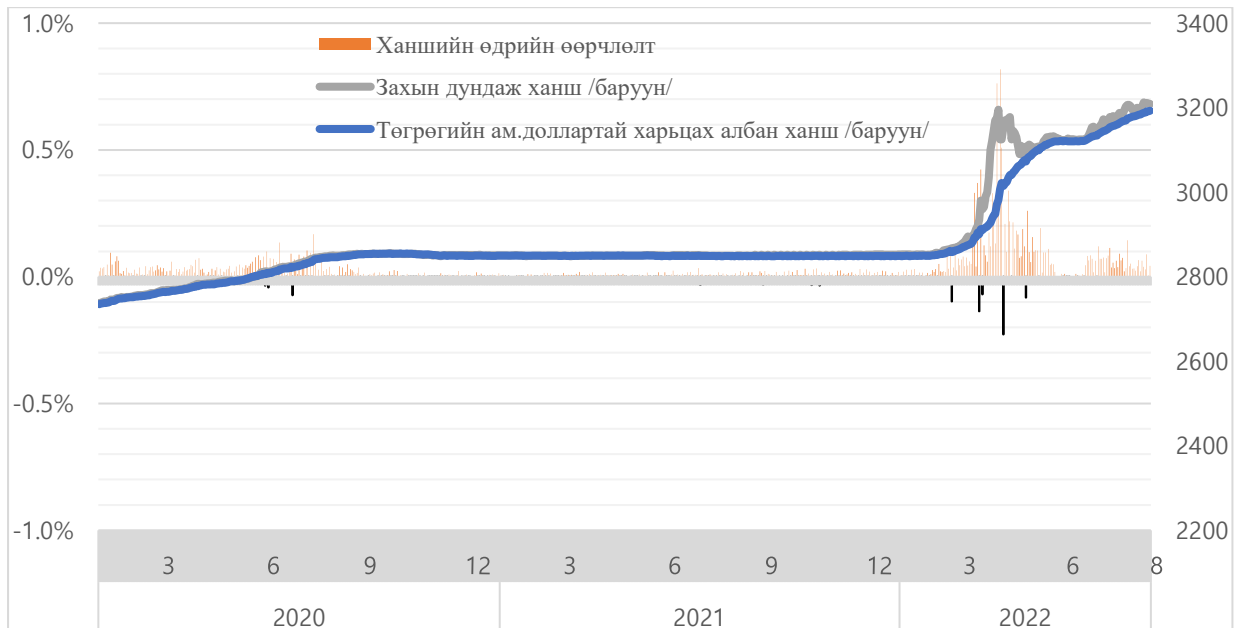
-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무대 즉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 철군요구 결의안, 러시아 유엔 인권이사회의 퇴출 결의안,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러시아에 배상 책임 결의안, 러시아의 불법적 병합 규탄 결의안 등을 채택하여 개별국가들의 지지를 호소했는데 몽골은 이들 투표에 대해 기권을 행사해왔다. 몽골 국내에서는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는 시위가 2022년 봄부터 이어져왔고, 국내사정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몽골 주재 러시아 대사에 대한 국내반대여론도 컸었다. 국내외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2022년 8월 3-9일에 몽골에서 러시아와 몽골은 정기적 '셀렌게 (Selenge)' 공동군사훈련을 수행할 정도로 러시아와의 우호관계 유지에 힘쓰고 있다.
- 몽골은 에너지, 로지스틱, 식량 등 여러 차원에서 러시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주요 물품 공급망 안정화가 가장 큰 과제가 되고 있다. 휘발유, 디젤 등 연료 공급에도 차질이 빚었다. 2022년 4월 휘발유 가격 64.8%, 디젤 가격이 45% 오르는 현상이 있었다. 이에 몽골 광업중공업부 차관이 러시아 로스네프트(Rusneft)사와 직접 만나, 가격안정화에 수습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 연료수급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로 제7차 동방경제포럼에 몽골 총리가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2027년까지 휘발유는 830달러, 경유는 10% 할인 조건으로 수입가격을 동결시킬 수 있었다.
- 러-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몽골의 외환시장이 일시적 불황을 겪었다. 2022년 2월 이후 6개월 사이 몽골 투그릭은 14% 평가절하되었고, 몽골의 외환보유고가 일시적으로 40%까지 감소되는 일이 있었다. 시장불안정성에 대응해 시중은행들이 1일 달러화 매입에 한도 제한을 적용하였다. 2022년 4월부터 달러 송금 최대 한도를 5백만 투그릭(약 1,545\$)으로 한정시켰고, 9월 14일부터는 1백만 투그릭(약 310\$)으로, 9월 30일부터는 30만 투그릭(약 90\$)으로 각각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몽골이 러시아와 중국,

KIEP 몽골연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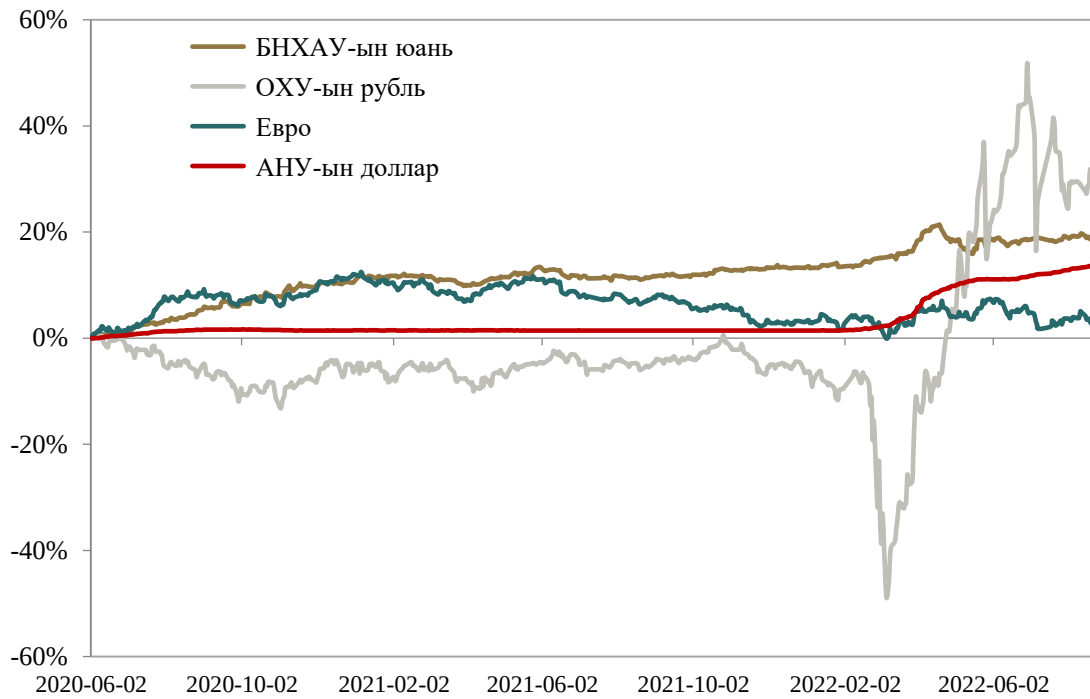
단국대학교 부설 몽골연구소 전임연구원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유충지로 물류서비스산업도 타격이 크다. 최근 어용에르덴 총리가 해외언론과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몽골을 통하는 유럽-아시아간 항공운항이 감소됨에 따라 자국 영공통과료 수입이 급감하였다. 또한 대러 연료수입 의존하는 몽골로서 연료수입 대금결제와 공급량 차질이 생겼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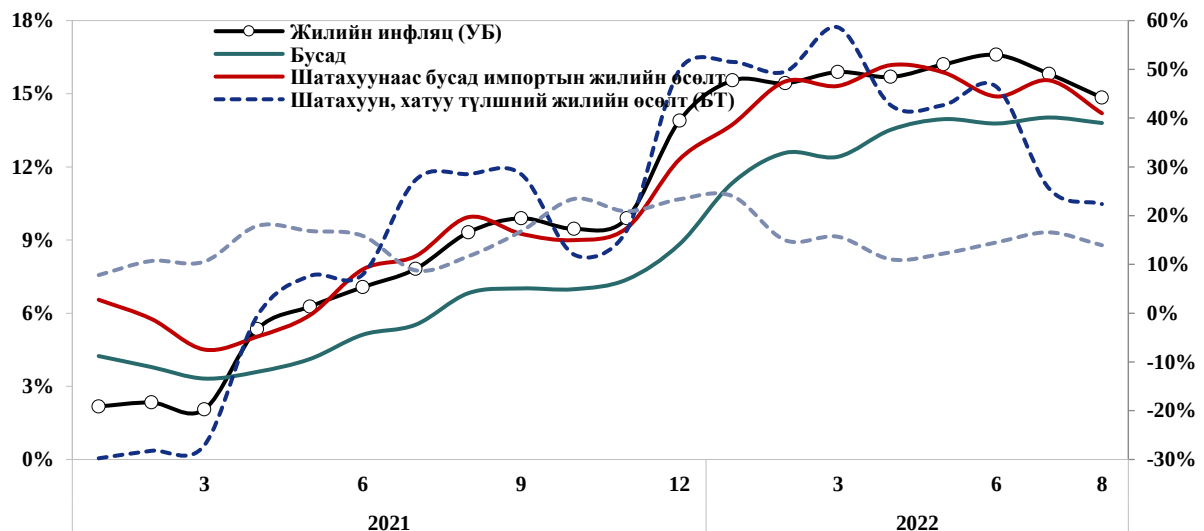
<그래프-3> 2020-22년 사이 몽골 환율 변동 추이



<그래프-4> 2020-22년 사이 외화별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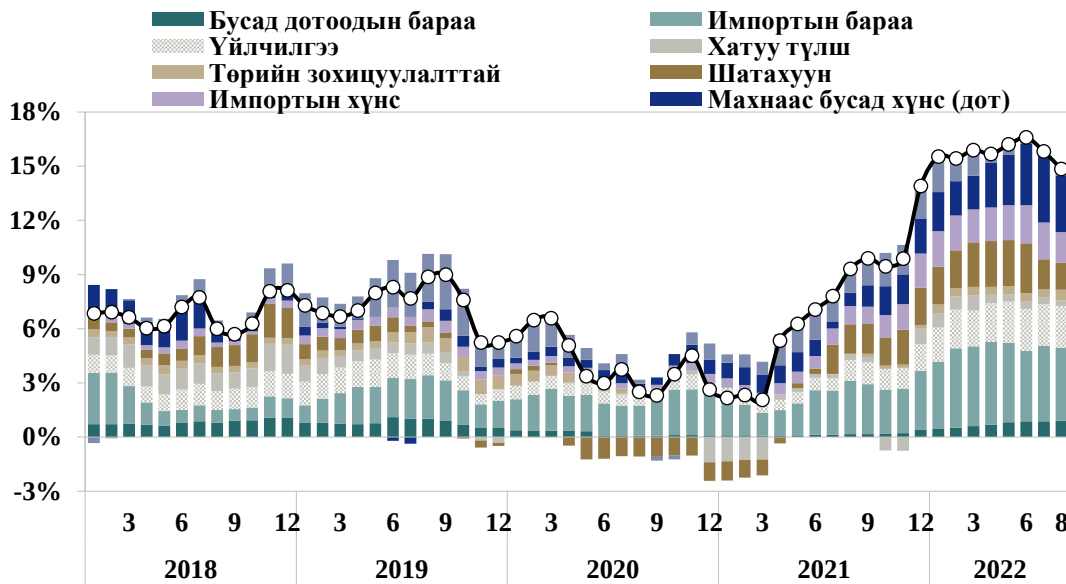
<그래프-5> 2021-22년 몽골 인플레이션 추이



<그래프-6> 2018-22년 인플레이션 요인별 구성비율

KIEP 몽골연구회

단국대학교 부설 몽골연구소 전임연구원



- 한편 2022년 하반기에 들어서 러시아내에서 대규모 군 동원령이 실시되어 러시아인이 몽골을 포함한 주변국가로 탈출하는 현상이 2022년 한해 동안 이어졌다. 2021년 말 기준 몽골을 입국한 러시아인 수가 14,231명이었다면 2022년 말 157,309명에 달했다. 몽골정부는 러시아인 급유입에 대응해 일시적 난민으로 취급하여 1달 동안 체류허가 또는 취업허가를 부여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다.

4. 몽골 러시아 관계에서의 향후 주요 과제

- 러와의 주요 개발협력사업 추진 불확실성 증대: 철도중앙회랑 리모델링 사업, '시베리아 파워-2' 연장선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 우라늄 등 광물개발사업, 몽골 화력발전소 제정비 사업 등이 러시아가 대몽골 주요 협력사업들이다. 그러나 이들 사업의 앞으로의 운명은 러시아의 전쟁문제, 서방의 대러 제재, 중국정부의 의지 등 여러 요인에 좌우될 것이다. 한편 Erdenet 공장과 Mongolroostsevtmet 사 등 양국 기존 합작기업들의 경우 낙후된 기술과 경영악화, 저조한 투자 등으로 인해 결국 매각된 사례가 있다. 일반적으로 러시아의 대몽골 투자는 민간기업보다 국영기업 위주로 그리고 투자산업 역시 정부개입이 높은 업종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최근 몽골에서 공기업의 부정부패와 부실경영이 난제가 되고 있어 국가개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아 공기업에 의한 투자사업은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 연료 등 일부 수입상품 수급문제: 휘발유, 디젤 등 석유와 역청유 그리고 밀 등 곡물, 코코아와 식용유 등 식품군, 질소비료 등 수입상품 가격인상은 물론 안정적인 공급도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들 상품의 비축 또는 다른 공급노선 확보 등이 몽골 정부에게 중점 과제가 된다.

KIEP 몽골연구회

단국대학교 부설 몽골연구소 전임연구원

- 몽골의 에너지 독립정책, 러시아의 반대에 따른 갈등: 몽골정부가 에너지의 대외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최대 과제이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와 이익충돌이 분명히 있다. 러시아는 몽골의 에너지부문에 대한 절대적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몽골의 수력발전소 개발사업을 반대하고 연료수급 관련해서 자국 기업 진출을 적극 시도해왔다. 반면 후렐수흐 대통령은 총리시절에 '정유공장 사업' 착수를 추진하였고, 지난 9월 16일 열린 몽골, 중국, 러시아 정상회담 자리에서 "몽골이 에코, 에르덴부렝 등 수력발전소 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두 나라의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수력발전소개발과 그를 둘러싼 환경문제가 양국간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